

2면	우리가 만드는 학교 : 대학평의원회	3면	2017년 전기요금 45억 원, 전력절감대책 실효성 있나	4면	생활관학생자치회, 비슬빌리지 유실물 집중회수기간 운영	5면	DGIST 첫 졸업생들의 대학원생활 엿보기
6면	제2회 학부생 토론대회 결선 열려	8면	자전거,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	9면	찾아가는 여성과학자 간담회 개최	10면	DGIST 길고양이들의 Papa, Daniel 교수를 만나다
12면	DGIST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가나에 가다	13면	[오피니언] 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14면	DIFF 상영작, 고백 정아름 감독과 영화를 이야기하다	15면	내게 영화는 운명이다, '김병희관' 문재웅 감독과 마주하다

## 정규직 전환,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실험실 이용 학생 안전부터 보장해야

지난 2018년 7월 진행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20일에 전환 대상을 확정했고, 2018년 1월 11일과 5월 31일에 전환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과기부 감사와 내부 구성원 반발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행정원과 기술원이 퇴직하였고, 안정적인 학사 업무와 실험실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학부, 대학원 운영과 학부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맡던 직원 중 2017년 07월부터 퇴사했거나, 2018년 12월까지 퇴사할 인력은 총 31명이다. 해당 부서는 ▲ 교무팀 ▲ 교수학습센터 ▲ 대학원 전공사무실(뉴바이올로지, 로봇공학, 신물질과학, 에너지공학, 정보통신융합전공) ▲ 대학원팀 ▲ 상담·경력개발센터 ▲ 학부팀 ▲ 학생팀 ▲ 학술문화팀 등 총 11개 부서이다.

한 학생은 “어제까지 전화로 대화를 주고 받았던 행정원분이 퇴직해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행정처리에 수일이 더 소요되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공백없이 필수로 운영되어야 할 ▲ 학부팀 ▲ 학생팀 ▲ 대학원팀 ▲ 대학원 전공사무실 인력이 퇴직하면서 학생들이 겪을 불편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 안전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학부 실험실 안전관리 인력이 비정규직인 탓에 안정적인 실험 수업 운영과 실험실 안전 관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실제로 학부팀 소속 실험실 안전관리 인력 5명 중 2명이 퇴직했고, 오는 11월 30일 1명이 추가로 퇴직한다. 나머지 2명마저도 내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 예정이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천명한 DGIST는 안정적인 실험 수업과 학사 운영, 그리고 학생 안전부터 책임져야 한다.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정당하다. 다만, 교육을 지원하는 행정원과 실험실을 관리하는 기술원의 정규직 전환은 실험실을 사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학생의 ‘학습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자가 많아져 학사업무가 마비되어가고 있다. 공백 없는 업무 지속을 위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학사업무 행정원과 실험실 안전관리 기술원의 우선적 정규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 2017년 07월부터 퇴직했거나, 2018년 12월까지 퇴직할 인력 통계 < 제공 = 인재경영팀 >

부서명	인원수
교무팀	3
교수학습센터	3
뉴바이올로지전공	3
대학원팀	1
로봇공학전공	1
상담·경력개발센터	3
신물질과학전공	1
에너지공학전공	1
정보통신융합전공	1
학부팀	7
학생팀	5
학술문화팀	2
총합계	31

## 해동창의마루,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공간 되길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 반입은 삼가합시다!

지난 12일 (월요일) 컨실리언스홀(E7) GATE2 앞 공간에 조성된 해동창의마루 개관식이 열렸다. 개관식은 ▲ 다도체험 ▲ 축사 ▲ 명칭 공모전 시상 ▲ 현판 제막 ▲ 해동창의마루 투어 ▲ 기념공연 ▲ 특별강연 순으로 열렸다.

해동창의마루는 해동과학문화재단 김정식 이사장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해동 김정식 회장은 학생들의 학문증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해동창의마루 건립을 지원했다.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김근우 회장('16)은 축사에서 “해동창의마루가 때로는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시키고,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자치단체들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축사에서 손상혁 총장은 “해동창의마루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학생들이 융복합적 사고를 체득하고, 협력하는 것이 익숙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해동창의마루의 건립취지와 공간철학을 깊이 간직하고,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소중한 지원에 인재양성과 신기술창출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해동창의마루는 기초학부 최시온 학생('17)이 명칭 공모전에 출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명칭이다. 창의마루는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담

은 ‘창의’와 순우리말로 하늘을 뜻하는 ‘마루’를 결합한 단어이다. 최시온 학생은 이 공간이 학술적인 공간만이 아닌 학생들이 모이는 생활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동창의마루’로 출품했다고 밝혔다.

해동창의마루를 디자인한 기초학부 박종래 교수는 “타인과의 소통, 사회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건축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 이전이나 확장이 용이한 가구와 같다고 덧붙였다. 해동창의마루는 도동서원에서 영감을 얻은 한옥의 구조에서 유래했기에, 대청마루와 세살문, 디딤돌 등 한옥의 깊은 맛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종래 교수는 “신개념의 다용도 복합공간인 해동창의마루가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지식이 교류되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가는 장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동창의마루 건설에는 모두 천연 원목을 사용했다. 따라서 원목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동창의마루에서 음식물을 먹는 등의 행위는 삼가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개막식 후 강연은 기초학부 김학수 교수가 ‘융복합인재가 가져야 할 소통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 해동창의마루 공간 설명을 하고 있는 기초학부 박종래 교수 < 제공 = DGIST 방송국 >



△ 해동창의마루 < 사진 = 류태승 기자 >

# 우리가 만드는 학교 : 대학평의위원회

다른 학교의 사례로 반면교사하는 DGIST 대학평의위원회의 방향성

## [대학평의위원회란 무엇인가]

대학평의위원회란 교직원과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 단위의 대표자들이 모여 중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며 도입되었는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후 17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평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경우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설치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되 동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학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의 권한을 갖는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우리 DGIST는 현재 이사회에서 학내 주요 사안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므로 주요 사안의 결정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다.

## [다른 학교의 대학평의위원회 설치 현황]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18년 5월 29일부터 국·공립대학도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18년 8월 9일 기준으로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평의위원회 설치의 난항은 각 단체의 입장차가 원인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3월 22일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 단체의 1/2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 대학의 고유한 기능인 교육과 학문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청원했다. 반면 조교 단체와 대학 공무원 노조는 다양한 구성원의 최소한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

평의위원회의 특성 상 구성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도 4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적 약자가 되기 쉬운 학생위원의 참여 비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각 단체의 대립으로 인해 평의위원회의 구성은 쉽지 않다.

대학 내 평의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도 평의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6월 중앙대는 특정 4개 학과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평의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했으나 중앙대는 학과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학생들에게 대학 평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개정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평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개정안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남대에서도 철학과 폐지 과정에서 평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폐지를 강행하는 비슷한 갈등 사례가 있다. 이처럼 대학 평의위원회가 의결이 아닌 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 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16년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대학의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중 학생 비율은 평균 11.9%였고, 이 중 70.8%인 189개 대학에서는 학생위원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동문/기타 사항의 비율인 23.6%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또한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출한 107개 대학 중 76.6%인 82개 대학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위원에서 해촉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취지는 훼손되고 있다.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UNIST가 2015년부터 대학평의위원회를 운영중이다. UNIST의 대학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하는 3명 ▲전임교원 10명 ▲정규직원 3명 ▲학부학생대표 1명과 대학원학생대표 1명(개정 2016.10.12)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교수	직원	학생	동문/기타	합계
인원	1198	753	360	715	3026
비율(%)	39.6	24.9	11.9	23.6	100

△ 2016년 사립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 출처 = 박경미 의원실 >

## [DGIST의 대학평의위원회 설치 현황]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어, 2017년부터 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연대하여 논의중이다. 4개 과기원의 요청에 따라 조승래 의원 외 15인은 지난 2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등 법률안 4안을 발의했다. 이는 과학기술원에 '평의위원회'를 두어 중장기 학위과정 및 교육이나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특정 구성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9월 19일 상정된 상태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원에도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가 된다.

우리 원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학생 차원에서 대학평의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2월 대학평의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학생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실패하였다. 2018년 4월 10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는 '대학평의위원회설치준비위원회' 설치와 정관 개정을 함께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9월 28일 전학대회에서 대학평의위원회 총학생회안의 수정과 정책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 투표는 총 투표수 118표 중 찬성 112표로 11월 23일 전학대회에서 최종 의결이 진행 예정이다.

총학생회에서는 대학평의위원회 총학생회안을 통해 우리 원의 대학평의위원회가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 ▲교육, 연구 및 학생,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져야 하고, 학생 구성비를 25%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학 평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평의위원회에 의결권까지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이는 대학평의위원회가 자문 권한만 갖는 무의미한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 [DGIST의 대학평의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

대학평의위원회는 자문·심의기구이다.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실패한 타 학교의 사례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심의 사항이 무시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사립학교의 예시처럼 학생 대표의 비율이 낮으면 주요 사항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정 비율을 유지하여 학생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대학평의위원회인 만큼 학생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난 겨울과 같이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될 것이다.

신민혜 기자 shinminhye@dgist.ac.kr

	고등교육법 (전국 대학에 적용)	DGIST법 개정안 (조정래 의원 발의)	총학생회안 (의결 예정)
구성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기타	교원, 직원, 학생, 기타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기타
규모	11명 이상	11명 이상	
심의	대학 발전계획, 학칙의 제·개정,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 교육, 연구 및 학생·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 교육, 연구 및 학생,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교육과정의 운영,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 2017년 12월 정족수 미달로 평의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모습 < 사진 = 류태승 기자 >

△ 고등교육법, DGIST 법 개정안, 총학생회안 비교 < 그래픽 = 신민혜 기자 >

# [제2회 STadium] 우승은 없지만, 좋은 경기 보여준 DGIST

11월 10일, 제2회 과학기술원 연합 축제, STadium이 GIST에서 열렸다. 참여한 학교는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다섯 학교이다. 종목은 ▲농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 ▲리그 오브 레전드 ▲카트라이더 총 6종목이었다. ▲농구 ▲축구 ▲배드민턴은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DGIST는 축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쉽게도 그 외 종목에서는 예선탈락했다. 나머지 3종목은 리그로 진행되었고, ▲탁구는 5위 ▲리그 오브 레전드는 3

위 ▲카트라이더도 3위에 머물렀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는 POSTECH을 제외한 4개 학교만 참가했다.

배드민턴은 작년에도 우승한 만큼, DGIST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UNIST와의 대결에서 졌다. 총 7경기 중에 DGIST와 UNIST가 각각 3경기를 이기고, 마지막 남자 복식 한 경기만을 남긴 상황이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사고로 DGIST 선수 한 명이 다쳤고, 경기가 중단

되었다. 다친 선수는 병원에 갔고, 남은 경기를 어떻게 할지 양측학교가 합의하여 남녀 혼식에 참여한 남자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남자 복식 경기를 하기로 하였다.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선보였으나, 아쉽게도 결승에 올라가지는 못했다.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했던 강승환 학생('18)은 "졌지만 페어플레이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다. 멘탈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팀 선수가 다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모든 결승 경기가 끝나고 폐회식을 한 후에는 동아리 공연이 이어졌다. DGIST에서는 Voice Fishing, 화양연화, BGM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이동규 기자 kinkigu@dgist.ac.kr



△ 배드민턴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이동규 기자>



△ 야구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제공 = 지스트 신문>

## 2017년 전기요금 45억 원, 전력절감대책 실효성 있나

"티끌 모아 태산"도 좋지만 연구시설 확장에 따른 예산 확보 더욱 필요해



△ 학생 식당 앞 전기 절약을 홍보하는 배너 <사진 = 류태승 기자>

2017년 전기 요금 약 46억 원, 몇 년째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기요금 약 36억 원 ▲2016년 약 41억 원 ▲2017년 약 45억 원으로 약 14%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2월 전기요금 여유분이 부족해, 2018년 예산으로 납부하였다. 그로 인해 2018년 약 3억 원의 집행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11월까지의 전기요금을 통해 추산했기에 12월 냉난방 및 시설 기기 가동에 따라, 부족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이 신규 임용되며 랩을 신설하고, 전기기기를 가동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매년 전기요금은 원내 시설(중앙 기기센터, 실험동물센터 등 대형시설, 연구동 내 실험실 및 연구시설)의 장비 가동률에 따라 유동적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예산액은 집행액에 겨우 뒤따라 증가할 뿐이다. 실제로 예산액은 ▲2015년 약 37억 원 ▲2016년 약 38억 원 ▲2017년 약 43억 원 ▲2018년 약 45억 원으로 집행액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로 인해 시설팀은 부족분에 대해 2016년에는 경상비 여유분을 통해 부족분을 집행했고, 2017년에는 예산집행월을 조정해 18년 예산으로 납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 전력 절감 캠페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원 특성상 시설의 전력 사용은 쉽사리 줄일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설팀에서는 공공시설에 초점을 맞춰, 전력사용 절감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학사동 승강기 제한, 여름철 실내온도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매년 2억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실제로 캠페인을 진행한 9월, 예상 전기요금보다 2천만 원 가까이 감소하였다. 원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쌓여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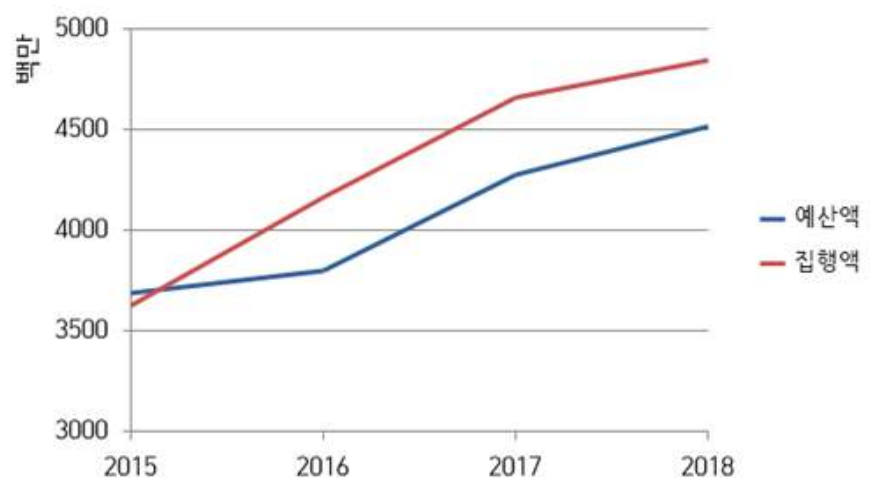
하지만 이것이 유연한 전력 절감 방안 인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원내 구성원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언제까지나 승강기 가

동 중단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기요금 예산을 더욱 많이 증편할 필요가 있다. '자린고비'식 절감 방안이라는 말을 더는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임다빈 기자 frankful@dgist.ac.kr

<sup>1</sup> 2018년 전기요금 예산액 4516백만 원, 2017년 12월부터 집행된 2018년도 전기요금 4828백만 원 (2018년 8월부터는 추정 집행 금액에 따른다.)

<sup>2</sup> 추정 12월 전기요금 약 443백만 원. 이를 2018년도 분으로 납부할 경우, 약 7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족함.



△ 전기요금 예산액과 집행액 <그래픽 = 임다빈 기자, 자료제공 = 시설팀>

# 생활관학생자치회, 비슬빌리지 유실물 집중회수기간 운영

창고에 잠자는 짐 찾아가세요!

11월 26일, 29일, 12월 1일, 2일 총 4일간 6회 유실물 회수기간 운영



△ 비슬빌리지 학생생활관 1층 창고 모습: 반 이상이 유실물로 채워져 있다. 냉장고부터 퍼스널 모빌리티, 전공서적, 독서실과 교류실 수거물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 <사진 = 류태승 기자>

생활관학생자치회(이하 생자회)가 오는 11월 26일(월)부터 12월 2일(일) 중 4일간 유실물 집중회수기간을 운영한다. 집중회수기간 동안에는 지난 11월 2일 학생생활관(H201~204) 복도와, 매 학기 독서실과 교류실에서 수거한 짐들을 찾아가 수 있다. 유실물은 학생생활관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다. ▲ 11월 26일(월) ▲ 11월 29일(목)은 오후 7시, 10시에 ▲ 12월 1일(토)과 ▲ 12월 2일(일)은 오후 9시에 30분간 창고에 직접 방문해 찾아가 수 있다. 총 4일간 6회 30분씩 진행된다.

창고에 있는 유실물은 DGIST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배너 중

‘유실물 확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실물을 찾으려면 생자회 플러스친구나 메일, 페이스북 메시지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자치위원이 창고에 있는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면 된다. 한편, 집중회수기간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짐은 임의로 처분될 수 있다. 생자회가 중고장터를 주최하거나 외부업체에 기증될 수 있다.

창고에는 이번 연도에 수거한 짐은 물론 이제까지 수거했던 모든 짐들이 보관되어 있다. ▲ 바이올린을 포함한 다양한 악기류 ▲ 퍼스널 모빌리티 ▲ 냉장고 ▲ 전공 서적 ▲ 옷 등 다양한 유실물을 보관 중이다. 현재 창고의 면적 절반에 유실

물이 보관되어 있다. 유실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겨울방학 기간 중 원활한 창고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겨울방학 짐 보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생들의 적극적인 유실물 회수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고 생활관에 방치되어 있다가 창고로 들어온 책들도 많다. 실험실에서 빌려온 기구도 방치되어 있다. 생자회 회장 이경헌 학생(16)은 생활관내에 임의로 짐을 방치하면 다른 학생의 생활관 이용에 피해를 주고 비상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짐을 잘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유실물 보관 3개월이 지나면 유실물을 매각해 학생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6개월 후에 아름다운 가게 또는 이화인의 나눔 가게에 기증하거나 폐기한다. 성균관대학교도 6개월 후에 폐기하지만, 물품의 상세정보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 분실자가 물품을 찾으러 왔을 때 분실물의 특징 등을 정확히 기억해야만 회수할 수 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 5대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경진대회 열려

DGIST 3개팀 참가, 최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9일 성남시 판교 네이버 그린팩토리 커넥트 홀에서 2018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5대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창업교육센터-JETS(Joint Education center for Technology Startup)가 주관하고 해당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기특성화대학 연합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 DGIST에서는 헬스바이미러, Yo.od, ZeFit 이 참가하였다. 대상은 KAIST의 세컨드찬스 팀이, 최우수상은 DGIST의 ZeFit과 KAIST의 Petturn이 수상하였다.

DGIST에서는 ▲스마트미러, 칫솔 홀더를 통한 아동 치-위생관리 서비스(헬스바이미러)-강건욱,고명균 학생('16), ▲ '요오드 저감화 기술을 통한 저요오드 해조류 및 가공식품 개발(Yo.od)-김준호 학생(뉴바이올로지 '18) ▲ '제브라피쉬 활용 신약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ZeFit)-신준영 학생('14),김소희 교수(로봇공학)등 3개팀이 공동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ZeFit팀은 DGIST 연구성과 기반의 3가지 핵심기술을 통한 제브라피쉬 복수개체 생체 신호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아이템을 내세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대회는 5대 과기특성화 대학 간의 창업연대를 강화하고 선의의 창업경쟁을 촉발시키고자 과기특성화대학 창업엘리트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과기특성화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기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팀을 학교별 대표팀으로 선정하여 매년 말 경진대회를 통해 최고의 팀을 선발한다. 심사는 네이버 D2, K-ICT, 퓨처플레이 등 창업관련 각계의 전문가 5인이 진행하였으며 대회 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팀에게는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김준호 기자 gotocern@dgist.ac.kr



△ 9일 열린 공동창업경진대회 수상자들. 첫번째 줄 제일 우측에 ZeFit 팀이 있다. 왼쪽에서부터 강승환 학생('18), 신준영 학생('14) <사진 = 김준호 기자>

# [르포]DGIST 학부 첫 졸업생들의 대학원 생활 엿보기

박모 학생(18)은 아침 9시에 연구실로 출근해 제일 먼저 메일을 열람한다. 연구실 동료들은 다양한 창구로 업무 관련 소통을 하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카카오톡도 확인한다. 업무 지시사항과 실험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일과를 계획한다.

“연구적으로는 힘든 것이 없어요. 실험이 잘 진행이 안돼 답답할 때가 많지만, 연구가 적성에 맞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박모 학생은 대학원 생활에 만족한다. 박모 학생의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을 실험으로 보낸다. 일주일에 3~4번정도 거의 모든 업무 시간을 공정실에서 보낸다. 박모 학생의 평소 퇴근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이다. 사람이 많아 공정실의 장비 예약이 밀리면 실험을 끝내고 새벽 3시에 퇴근할 때도 있다.

실험 말고도 연구실 사람들이 할 일은 연구 과제를 받기 위한 일,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과제 관련 외부인 미팅, 장비 구매

처리 등이 있다. 박모 학생은 아직 석사 과정이어서 많은 일을 하진 않는다. 랩 홈페이지 운영 등 연구실 운영을 위한 일들은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분담해 맡는다. 박모 학생은 회의록 작성과 랩 사진 찍는 일을 맡고 있다. 박모 학생은 “연구와 랩 업무, 개인 시간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첫 사회생활, 힘든 점도 재미있는 점도 있어]

DGIST 학부 첫 졸업생들에게 대학원 생활은 첫 사회생활이다. 박모 학생은 “직위가 존재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사회 생활이 조금 힘들다”며 “사람 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즐거운 점도 있다며 “외국인 친구가 많아서 좋다”고 말했다. 김모 학생(18)은 박모 학생의 같은 연구실 동료이다. 김모 학생은 “사람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대학원생 동기는 학부 동기와 달리 수가 적어 새롭다.”며 “다양한 연령층의 랩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재미있다.”고 말했다.

### [융복합 학부, 대학원 연구에 도움이 돼]

“우리 랩은 융복합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실이에요. DGIST에 있는 거의 모든 학과가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폭넓게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깊은 지식은 인터넷이나 논문을 찾아서 배울 수 있어요.” 박모 학생은 융복합 연구를 하는데, DGIST 학부 때 배운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DGIST가 아닌 다른 대학원의 경우에는 융복합 학과가 아니라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 학부생이 진학 후에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연구실이 다루는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을 붙였다. 김모 학생도 DGIST 융복합 교육이 대학원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학부생들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되면, 폭넓게 아는 지식으로 협동이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학원 오기 전 많은 경험 추천해]

“대학원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학부생들은 연구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김모 학생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목적의식을 강조했다. 박모 학생 또한 동의하며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학과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해요. 인턴십, UGRP, DURA 등 할 수 있는 것 다 해 봐요.” 박모 학생은 대학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연구가 재미없으면 대학원을 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막연히 학위를 따고싶어서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을 붙였다.

육민정 기자 leahymj2@dgist.ac.kr

# DGIST 연극동아리 점아비, “연애하기 싫은 날” 선보여



△ 취업 준비로 바빠서 여자친구에게 소홀한 이성규와, 상처받은 표정의 명지호 <제공 = 점아비>



△ 자칭 카사노바인 김태우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달라고 부탁하는 이성규 <제공 = 점아비>

지난 9월 7일, DGIST 연극동아리인 점아비가 연극 “연애하기 싫은 날”을 공연했다. 이는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원작으로 구본진(17), 박종석(14) 학생이 직접 만든 로맨스 코미디 연극이다. 출연진은 구본진(17), 강휘현(17), 조명지(16), 김태영(17) 학생이다. 구본진 학생은 이성규 역으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나 취업 준비로 바빠 여자친구에게는 소홀한 학생회장으로 분했다. 강휘현 학생은 김태우 역으로, 이성규의 첫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술을 좋아하는 자칭 카사노바이다. 조명지 학생은 명지호 역으로, 이성규의 3년 차 여자친구이며 독서를 좋아하는 팔방미인으로 분했다. 김태영 학생은 녀살스러운 음식점 알바생으로 출연했다.

극 중에서 이성규는 취업 준비로 바빠서 여자친구에게 소홀하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자칭 타칭 카사노바인 친구 김태우에게 명지호를 꼬드겨서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해 달라고 설득한다. 김태우는 고민하지만, 꽃등심을 사 준다는 말에 넘어가 남자친구에게 상처받은 명지호에게 접근한다.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시작할 일이지만 명지호와 김태우는 생각보다 잘 맞는 서로를 발견하고 점점 마음을 연다. 반면 이성규는 그제야 명지호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한다.

방학부터 연습한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은 개강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점아비의 다음 공연은 11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신민혜 기자 shinminhye@dgist.ac.kr



△ 공연을 마친 점아비 부원들 <제공 = 점아비>

# 제2회 학부생 토론대회 결선 열려

34개 팀 68명의 학생이 참가해 논리적 사고 펼쳐

동물원은 과연 필요한 장소인가? 종차별주의의 온상인가

지난 11월 14일 제2회 학부생 토론대회 결선이 열렸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34개 팀 6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결선에는 바스티유 팀(구본진, 최원석 학생(17))과 자귀 팀(이연주, 서은빈 학생(18))이 진출했다. 심사에는 손상혁 총장, 김남두 기초학부 교수, 윤춘섭 융복합대학 학장, 김대륜 기초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결선은 ‘동물원은 과연 필요한 장소인가? 종차별주의의 온상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바스티유 팀은 동물원이 오늘날의 형태를 유지한다면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동물

원은 새로운 형태와 역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물원은 유희, 교육, 연구, 보존을 위해 동물을 멋대로 감금하고 전시하면서, 동물을 전혀 소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새로운 권리모델에 따라 종차별주의가 만연한 기존 동물원을 비판하고 향후 동물원의 방향을 소개했다. 더불어 모든 권리는 천부적이지 않고 인공적이며, 권리는 허용된 자유이며 피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공감은 반드시 권리부여로 직결된다며 권리부여는 인지, 공감, 권리부여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고 말했다.

바스티유 팀은 동물원을 동물에 대한 공감 확대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물원이 동물문화관련 사업에 총체가 되어야 한다며 문학 작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학 작가의 철저한 스토리 부여와 기획을 통해 관람객들이 동물원에 다녀가면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피해를 깨닫고 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동물원이 옳지 않다고 폐지한다면 수많은 실직자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보다 옳은 방향

으로 개혁하여 동물원을 유지, 발전시키고 동물들도 위하는 대안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체적 수익이 있다면 동물 보존과 연구도 훨씬 탄력적일 것이라는 장점도 제시했다.

**바스티유 팀**  
“권리는 천부적이지 않고 인공적”

“동물원을 동물에 대한 공감 확대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자”

자귀 팀은 동물원은 필요한 장소가 아니고 종차별주의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퓨마가 사살된 사건을 도입부에 제시하며 현대의 동물원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상업적인 이유로 설립되었다고 지적했다.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 동물원은 사람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동물 감옥이라고 언급했다. 대다수 동물원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살던 곳에 비해 매우 작은 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말했다.

둘째로, 동물들에게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인디언을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의 행위가 인종 차별적이라고 인식한다면, 사람은 안되고 동물은 가두어 관람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차별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동물들보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는 이유로 동물들의 거주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아이들에게 종차별주의를 가르치는 학습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자귀 팀은 아이들이 우리 속에 갇힌 체 이상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보며 이런 행태가 괜찮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종차별주의를 쉽게 학습하게 되기에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자귀 팀은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원의 개념을 바꾸고, 행동풍부화를 통해 야생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동물마다 적합한 환경을 보장하기는 경제적으로 힘들니, 최종 목적은 실제로 서식하던 기후와 비슷한 환경의 국가로 그 동물을 보내 행동풍부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귀 팀**  
“동물원은 사람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동물 감옥”

“동물들에게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종차별주의를 가르치는 학습의 장”



△ 토론대회 수상팀 및 기초학부 교수 <제공 = 홍보팀>



△ 바스티유 팀 토론 모습 <제공 = 홍보팀>

입문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자귀 팀은 “굳이 바스티유 팀에서 제시한 테마파크 동물원이 아니어도 표마가 사살된 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바스티유 팀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동물이 사람과 동일한 존재라고 인정한 후 공감하는 사이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가 제시한 모델로 공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려고 한다. 동물을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하다. 동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본다면 정제되고 편향된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지 않은가?”

“미디어를 통해 본다면 정제되고 편향된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

곧이어 바스티유 팀은 “자귀 팀에서 제시한 동물원과 우리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동물을 풀어주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귀 팀은 “테마파크형 동물원도 여전히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동물들을 한 곳에 가두어두기에 동의할 수 없다. 행동풍부화는 이미 사람의 손을 탄 동물을 바로 야생으로 보내기는 힘들기에, 생태계에 돌려보내기 전 단계에서 사용된다. 행동풍부화는 동물을 계속 관람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바스티유 팀은 “상업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도구로서 둔다.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가 동물원을 열겠는가? 우리도 궁극적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갖는 주체로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재반박했다. 자귀 팀은 “뉴욕 센트럴 파크 동물원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장을 강화했다. 하지만 바스티유 팀은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 같다. 동물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한 기부가 이어질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귀 팀은 “동물원 기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에서도 도와준다면 충분히 상업적인 목적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테마파크형 동물원도 여전히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동물들을 한 곳에 가두어두기에 동의할 수 없다.”

“상업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도구로서 둔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바스티유 팀은 “동물은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존중해야 마땅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자귀 팀은 “바스티유 팀에서도 말했듯, 공감하고 동일하다고 인지했다면 반드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바스티유 팀은 “권리를 부여해야 생기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귀 팀은 “사람과 동물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도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자.”라고 주장했다.

바스티유 팀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존과 같은 역할의 동물원이 사라져야 한다는 자귀 팀의 의견은 우리와 별다르게 없다. 자귀 팀에서 제시해준 행동풍부화가 우리의 모델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동물원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데 시각차가 있다며 권리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바스티유 팀은 “동물에게 당연히 권리를 주는 것과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기 주장 때문에 자귀 팀의 발언에 공감하기 힘들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동물원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현실을 더 잘 반영한 것 같다.”라며 주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타자를 수용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충분히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동물은 당연하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존중해야 마땅한가?”

“동물도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자귀 팀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람들은 동물들을 감금하고 전시하면서 이윤을 얻는다. 동물들은 이상행동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다.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동물원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종차별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동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바스티유팀의 테마파크 동물원이 동물의 인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시설 동물원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예산상이나 공간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동물원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기부, 동물원 캠프 참여를 활발히 만들면 된다. 이 정책이 안정화되면 실제 서식환경과 비슷한 환경의 국가의 동물원으로 보낼 것이다.”라며 주장을 정리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테마파크형 동물원이 만들어져도 동물들의 권리가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두 교수

"정연한 근거 제시는 높이 평가"

"논리적인 설득력은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심사위원장이 김남두 교수는 자귀 팀이 승리한 요인으로 정연하게 청중들이 들을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해 논거를 분명하게 전달한 점을 들었다. 다만 논리적인 설득력은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대상은 이연주 학생(18), 서은빈 학생(18), 최우수상은 구본진 학생(17), 최원석 학생(17), 우수상은 정현수 학생(18), 박연수 학생(18), 장려상은 이우현 학생(18), 장준형 학생(18)에게 돌아갔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김준호 기자 gotocern@dgist.ac.kr



△ 심사위원장 김남두 교수 <제공 = 홍보팀>



△ 토론대회에 참석한 손상혁 총장 <제공 = 홍보팀>



△ 대상을 수상한 자귀 팀 이연주, 서은빈 학생(18) <제공 = 홍보팀>



△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스티유 팀 구본진, 최원석 학생(17) <제공 = 홍보팀>

# 자전거,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

## 방치 자전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UNIST와 GIST의 방치 자전거 대책

창고나 자전거 주차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 창고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언제까지고 쌓아 둘 수는 없다. 방치 자전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9월, 2학기가 개강하면서 자전거 등록 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학생생활관 건물 입구와 및 자전거 주차장 통행로에 주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DGIST 학생팀은 11월 19일부터 한달 간 원내 자전거 주차구역 외에 주차된 자전거를 단속해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견인된 자전거는 마냥 방치되고 있다. 학생생활관 202동 뒤편 창고공간과 신축기숙사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견인된 자전거가 보관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견인된 지 무려 2년 이상 지난 자전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가 주차장 내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생활관과 학술정보관의 자전거 주차장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들은 탈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쌓여있는 자전거나, 심하게 녹슬어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자전거들은 자전거 주차대 자리를 차지하거나, 통행로를 방해하고 있다.

DGIST와 학교 규모 및 학생 수가 비슷한 UNIST도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벤저스라는 스타트업이 1월부터 「유니스트 자전거-유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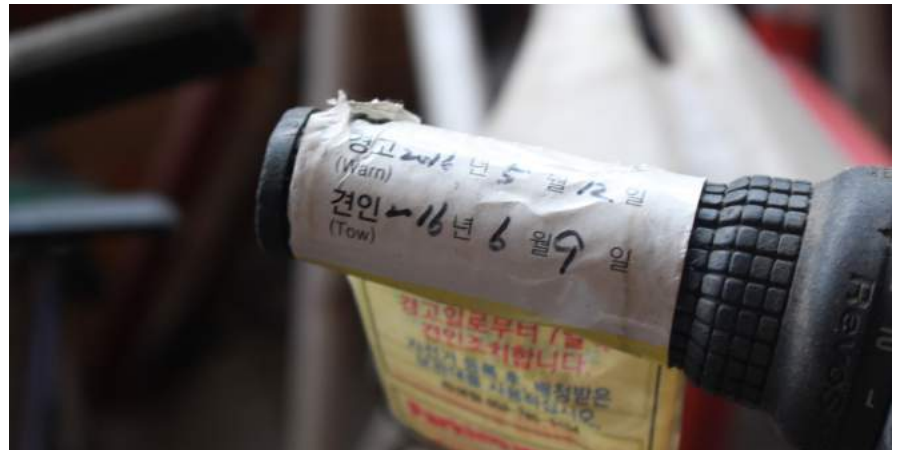
유벤저스 팀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프로젝트 계획은 4개월간 방치 자전거를 구분하고 방치 자전거를 5개월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이었다. 우선 교내 모든 자전거에 태그를 붙인다. 이후 자전거 사용자가 자신의 자전거에 붙은 태그를 발견하면 자전거에서 태그를 제거한다. 제거한 태그를 자전거 주차장 주변에 있는 태그 회수함에 넣는다. 이렇게 4개월 간 태그 회수한 다음, 4개월 뒤에도 태그가 붙어있는 자전거를 일체 수거한다. 그리고 수거된 자전거를 수리해 재활용하거나 부품으로 재사용한다.

지난 1월, 유벤저스팀에서는 교내 모든 자전거에 태그를 붙여 계획을 실행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태그가 야외에 노출되면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등 훼손되었다. 이렇게 태그가 사라져 방치 자전거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앞서 설명한 문제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까지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IST는 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UNIST의 유자 프로젝트처럼, 방치된 자전거에는 팻말을 붙여 둔다. 주인이 팻말을 제거하지 않은 자전거를 방치 자전거로 간주해 한 달 정도 뒤에 수거해 창고에 4~5개월 보관한다. 휴학생들을 고려하여 한 학기 정도 뒤에 자전거를 수리해 중고 자전거로 대여하거나 폐기한다. 실제로 올해(2018)년에는 2018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80대의 중고 자



△ 통로에 방치된 자전거 <사진 = 김승규 기자>



△ 창고에서 발견된 이 자전거는 견인 된지 2년이 지났다.

전거를 대여하였다. 이 중고 자전거 대여 제도는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도 좋기로 알려졌다.

DGIST 내 방치 자전거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학생팀에서는 방치 자전거 수거

후 후속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 자전거 처리 계획과 견인 자전거의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 DGIST 갤러리, 'Be Creative' 전시 개최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17점 전시돼

DGIST 갤러리는 이달 5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기획전시 'Be Creative'를 DGIST 학술정보관 1층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DGIST 학술문화팀이 선정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17점을 감상할 수 있다. 기획전시 제목 'Be Creative'에 걸맞은 풍자, 해학, 장르의 융합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특히, 융합을 시도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한국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하트 모양(하트가 있는 모란도, 김용철), 동양화 위에 그려진 사회망서비스(Network 산수, 박현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표현한 세포(Happy Cell, 최비오) 등의 작품들이 감상하는 사람에게 신선한 자극을 준다.

밝고 통통 튀는 색감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보이는 작품들도 있다. 반가사유상 흉내를 내고 있는 백수청년(반가감유상, 백민준), 하늘을 나는 돼지가 그려진 작품(슈퍼히어로 인 더 월드 I, II, III, IV, 유혜리) 등이 담고있는 긍정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가 마음 속에 울림을 준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정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장품을 대여해주는 '미술은행'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은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DGIST 학술문화팀은 이러한 운영취지에 맞게 DGIST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시각과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연간 2~3회 정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대여전시 하고 있다.

DGIST 학술문화팀 한미희 사서는 "구성원들이 오셔서 'refresh'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과제하느라 바쁜 학생 여러분, 한 해 동안 연구와 업무에 힘쓴 연구원, 교직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한 번쯤 들러 기분 전환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GIST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의 큐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curation.dgist.ac.kr/curation/w/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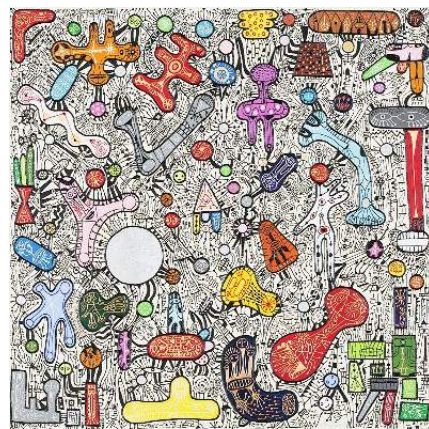
박동진 기자 pdj301@dgist.ac.kr

< Network 산수, 박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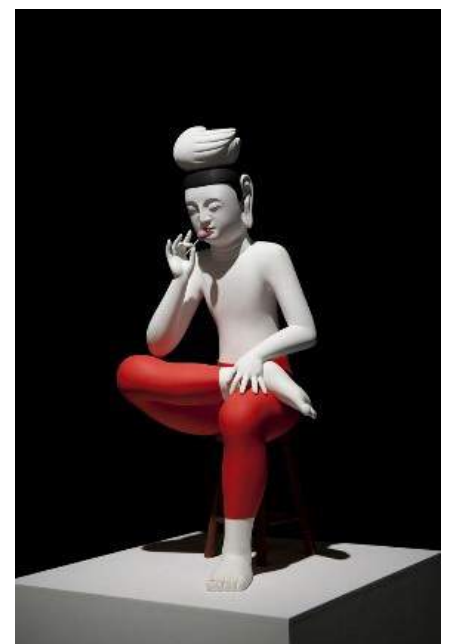
> 슈퍼히어로 인 더 월드 I, II, III, IV, 유혜리



△ 이번 전시의 큐레이션 QR 코드



△ Happy Cell, 최비오



△ 반가감유상, 백민준





# “어려움 있지만, 우리가 차차 바꾸어 나가야” 찾아가는 여성과학자 간담회 개최



△ 정옥희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란주 교수 ▲정옥희 교수 ▲이성빈 교수 ▲양호순 교수 ▲조연정 교수.  
<제공 = 신물질과학전공>

10월 12일, 신물질과학전공과 교무처 주최로 ‘찾아가는 여성 과학자 간담회’가 열렸다. 패널로는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소속인 ▲정란주 광운대학교 교수 ▲정옥희 순천대학교 교수 ▲이성빈 KAIST 교수 ▲양호순 부산대학교 교수 ▲조연정 경북대학교 교수가 함께했다. 본문에서는 간담회 내용을 ▲결혼 및 임신과 경력단절 ▲육아 문제 ▲성차별적 언어와 성희롱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재구성했다.

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학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시야를 넓히게 됐다. 결혼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한편, 정란주 교수는 “결혼하지 않은 삶에 꽤 만족하고 있다. 요즘 말하는 비혼이라는 선택지도 가능하겠다 싶더라”고 언급했다.

"경력단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일이나 공부를 하면서 아이에게 많이 신경써주지 못한다고 심하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

### [결혼 및 임신과 경력단절]

DGIST 학생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력단절이었다. 학생들은 이공계 직장에서 실제로 경력단절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다.

직원이 임신해서 공백이 생기면 기업은 곤란하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다. 갑자기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임신한 사람은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곤 했다고 정란주 교수가 전했다. 출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한다. 아예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부터 가임기 여성을 꺼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적·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결혼하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냐’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조연정 교수가 언급했다.

경력단절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양호순 교수는 분야 특성상 임신상태에서도 실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래도 어려움은 있기에 남편의 도움과 협조

### [육아 문제]

결혼과 임신에는 육아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엄마’에게 더 많이 지워지는 육아 부담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육아와 일을 병행해서 계속할 수 있었는지 경험을 나눴다.

정옥희 교수는 본인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고, 출산한 후에 유학했다. 공부하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걱정했는데, 아이는 오히려 엄마가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정 교수는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하는 것에 심하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아이를 키우느라 여러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사회를 바꾸는 힘 중 하나는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양호순 교수는 ‘역시 여교수라 그런다’는 말이 무서워서, 문제가 생겨도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남자 교수는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이성빈 교수는 “카리스트는 젊은 교수님이 많아서인지 공동육아가 잘 자리 잡혀있다. 여전히 엄마이기에 아빠보다 요구되는 것이 많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 [성차별적 언어와 성희롱]

남성이 여성보다 특히나 많은 이공계에서, 성차별적 언어와 성희롱 문제는 고질적이다. 정란주 교수와 정옥희 교수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나, 함께 술을 마실 때 성차별적인 말과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말이 많이 오갔다고 한다. 당시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서로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문제를 알려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호순 교수는 어떤 말이 성희롱이고 성차별적인 말인지 본인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친한 사이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란주 교수는 학교별로 상담소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본인이 겪은 성차별로, 석사 과정이 끝나고 유학을 하러 갈 때, 지도교수가 ‘여자니까 이론 물리를 하라’라고 말했던 경험을 나눴다. 양 교수는 본인 뜻대로 실험 물리를 했는데, 적성에 맞아 잘 공부했다고 한다. 여성에 관한 편견은 있지만, 그 편견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성빈 교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으면 힘들 수 있지만, 좋아하는 학문이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더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고가 많이 바뀌고 있

는 것 같다. 아직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 차별은 있지만,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 어떤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드러내야 한다."

정옥희 교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 어떤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드러내야 한다. 사회를 바꾸는 힘 중 하나는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우리가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여성을 대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경험을 나누는 것이 조금이나마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찾아가는 여성 과학자 간담회는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에서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공계에서 여성의 소수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고민이나 진로 등에 관하여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행사다. 2010년에 시작해,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서울시립대 ▲경희대 ▲GIST 등 이번 DGIST까지 총 20개 대학을 방문했다.

이동규 기자 kinkigu@dgist.ac.kr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 <제공 = 신물질과학전공>

# DGIST 길고양이들의 Papa, Daniel 교수를 만나다.

“DGIST 4C 중 Care가 있다. 우리 자연도 Care 해야 한다.”



△ 그를 만난 곳은 오피스도 강의실도 아닌 H301 동 뒤편, 길고양이 피오나의 집이었다. <사진 = 김준호 기자>



△ 봉순이와 Daniel 교수. Daniel 교수 부부는 매일 아침 - 저녁으로 두 차례 고양이들에게 사료와 참치 캔을 준다. <사진 = 김준호 기자>

DGIST 원내를 거닐다 보면 기숙사 로비 앞이나 S1 근처를 배회하는 길고양이 몇 마리가 눈에 띈다. DGIST에는 이런 길고양이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47년째인 그는 DGIST의 길고양이들의 Papa 같은 사람이다. 주변 사람에게 만이 아니라 길고양이에게도 따뜻한, DGIST 기초학부 초빙 석좌교수 Daniel Strickland 교수를 만나보았다.

### Q.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내가 처음에 한국에 방문했던 건 미국 Peace Corps 소속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왔던 1971년도였다. 나는 2년 반 동안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결핵 관리원이란 직책을 맡았다. 그때 우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지금의 내 아내이다.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 역학(epidemiology)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를 했다. 내 아내가 자신의 조국에서 살아본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는데, 미안한 마음에 한국에서도 몇 년을 살기로 결정하였다. 일자를 알아보던 중 DGIST에서 교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지원했고, 지금은 학생들에게 역학(epidemiology)을 가르치고 있다.

### Q. DGIST 내의 길고양이들이 총 몇 마리인가?

- 총 4마리다 DGIST 원 내에 거주하고 있다. 4마리 모두 암컷으로, 피오나, 봉희, 봉순, 미쓰 황이 있다. 피오나는 하얀 바탕에 등과 머리가 검다. 미쓰 황은 노란 몸에 왼쪽 앞다리가 부러져 있다.

봉희와 봉순이는 미쓰 황의 딸들이다. 다들 한쪽 귀가 조금씩 잘려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표시이다. 미쓰황이 봉희-봉순이를 배었을 때 영양이 부족했다. 그래서인지 봉희는 꼬리도 짧다. 다행히 봉순이는 정상인데, 가끔 까치도 잡아 먹는다. 봉순이는 거의 퍼펙트하다. (웃음) 봉희, 봉순이는 작년 3월에 태어났고, 미쓰 황은 4살, 피오나는 2살이다.

### Q. 1970년대 즈음에 한국에 파견을 와서 보건소에서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길고양이나 동물들을 돌보아준 적이 있는가?

- 나는 어릴 때 애완동물을 길렀다. 고양이랑 개 모두.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 화순군의 길가에서 동물을 본 적이 없다. 집에서 개들을 키웠지만 그들은 다 묶여 있었다. 도망 갈까봐 묶어 놓은 건데, 사실 중성화해서 불임상태가 되면 동물들은 도망가지 않는다.



### Q. 동물을 좋아하더라도 나서서 길고양이들을 챙기기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길가의 동물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한 것인가?

- DGIST에 오기까지 미국에서 다섯 마리의 고양이들을 키웠다. 그들은 모두 구조된 길고양이다. 동물 보호소라고 하던가? 마을 사람들이 길고양이와 같이 길에 버려진 동물을 맡기는 센터가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뒤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곤 했다. 고지대인 우리 마을은 산 근처에 있었다, 우리 뒤에는 오천 피트 정도의 산이 있었다. 높이가 죽히 지리산 정도는 될 것이다. 뒤뜰에는 숲도 있었다. 스컹크, 다람쥐, 라쿤, 올빼미, 박쥐, 곰, 사자들이 가끔 마을에 내려오기도 했다.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해치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았다. 다만 코요태는 말쑥꾸러기라서 조금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코요태는 고양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행히 뒤뜰에서 키우던 우리 고양이들은 안전했는데, 그건 스컹크가 뒷뜰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양이 냄새 (웃음). 라쿤에게 한 번 고양이 밥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종종 문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아우

성을 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자연스레 길가의 동물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 Q. DGIST 내의 길고양이들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 살기 힘든 상황인가?

- 사실 DGIST 내의 고양이들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내가 DGIST에 오기 전에 피오나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들의 대부분이 동사 혹은 아사했다. 미쓰 황도 작년 3월 네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미쓰 황은 쓰레기 통을 뒤지거나 학생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젖을 물렸지만,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여 두 마리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다. 남은 두 마리는 나와 부인이 돌보아서 다행히 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봉희와 봉순이다. 특히 다리를 다친 봉희 같은 경우는 사냥이 힘들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 Q. DGIST 구성원과 DGIST 길고양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 (웃음) 음, 그 행사에서 나는 주로 듣는 편이다.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고양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엔 귀여운 고양이 굿즈를 판매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 같다. 그리고 곧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가 출범할 예정인데, 동아리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와 내 아내는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캠퍼스 문화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 Q. 원만한 돌봄 문화 지속을 위해 길고양이의 개체 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고양이들이 어렵사리 새끼를 낳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전 보다 새끼 양육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길고양이 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내에 있는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했다. 지금 피오나나 다른 고양이들을 보면 귀가 잘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이다.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

### Q. 어떤 동물은 가족으로 분류되어 사육되고, 어떤 동물은 철창 안에서 감혀 있으며, 어떤 동물은 야생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 인간이 동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실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같이 사는 건 괜찮다. 인간이 말을 타는 걸 보면 어떻게 말이 움직여야 하는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협력해야 한다.

### Q. 이 글을 읽은 DGIST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줄 수 있는가?

-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자연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양이, 멧돼지, 삿살개, 소나무 모두 자연이다. 대도시에서 살던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서 고양이들을 환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점차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피오나, 미쓰 황, 봉희, 봉순이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한다. 특히 만져주고, 밥을 주거나, 사람 무릎 위에 앉는 것 좋아한다. 학생들이 좀 더 고양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DGIST의 4C 인재상 중 하나가 Care이다. 그 Care를 사람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준호 기자 gotocern@dgist.ac.kr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 디뢰딩거와 디냥이들

## "디냥이들과 사랑 나누길 희망해"



△ 페이스북 페이지 디뢰딩거와 디냥이들의 관리자 기초학부 한솔비 학생 ('18)  
(사진 = 이동현 기자)

수업을 들으며 DGIST E7으로 가는 길에 까지, 고양이, 고라니 등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는 이러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길고양이들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디뢰딩거와 디냥이들의 관리자 기초학부 한솔비 학생('18)을 만나보았다.

우리 DGIST 내의 고양이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몇 년 전부터 DGIST 내에 살면서 이곳에서 밥을 먹고 의식을 해결하는 부류이다. 이러한 고양이들을 디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미쓰황, 봉희, 봉순이라는 친구가 어린이집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피오나라는 친구가 302동 뒤에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또 다른 부류로는 가끔씩 모습을 나타내 밥을 먹는 부류가 있다고 한다. 한솔비 학생은 이번 학기 들어서 이러한 고양이들이 5마리에서 7마리 정도 늘었다고 한다. 학교에는 이처럼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데 아직 사람들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양이들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디뢰딩거와 디냥이는 DGIST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는 고양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런 동물들과 공존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원래 명칭은 디냥이와 800집사였으나, 내년부터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라 지금부터 가운영을 위해 페이지 명칭도 바꿨다.

평소 디냥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디냥이들과 나가서 놀기도 하고 간식을 주기도 한다. 평소에는 다니엘 교수 부부가 밥을 주지만, 다니엘 교수 부부가 종종 학교에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 들어 고양이들이 늘어나 밥이 모자르다. 이에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활동을 디뢰딩거와 디냥이들 페이지에서 하고 있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도 하지만,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고양이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한다. 고양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회의도 한다. 고양이를 보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도 있으니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솔비 학생은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길거리에 있는 동물 중에서도 고양이에 특별히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길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 중에서도 혼자 먹고 살 수 있어 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고양이는 사람과 사는 범위가 비슷하다고 한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 정말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어,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할 수 밖에 없어 길고양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솔비 학생은 주거지를 제공하고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DGIST내에 고양이와 같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퍼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양이들에게 무작정 다가가기보다는 고양이들의 기분도 살피면서 같이 행복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현해준다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솔비 학생은 DGIST 학생들을 향한 부탁도 잊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DGIST 내에 살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무조건 고양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동아리에 들어와서 사랑을 같이 나누거나, 고양이가 있는 곳에 가서 놀아주는 등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같이 동물들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김준호 기자 gotocern@dgist.ac.kr

「2018년 하반기」

# 진로탐색 세미나

## 일정안내

다양한 현장 전문가에게 진로에 대해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09.27.(목) 16:00

이승주 대표 (Orum Therapeutics)

"Biotech creation from academic science"

- 글로벌 제약회사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자에서 바이오벤처 창업자가 되기까지



11.01.(목) 16:00

남궁석 교수 (충북대학교)

"과학자가 되는 방법"

-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알려주는 과학자 서바이벌 가이드

- '과학자가 되는 방법'의 저자



12.06.(목) 16:00

권오석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nobio Sensing Technologies for Industry"

- 빌 게이츠 재단 지원을 받는 첫 국내 과학자

정소 추후 공지



# 2018년 제 5회 학습법 세미나

## "시대의 변화와 과학적 상상력 : 한국 SF와 변화에 대한 성찰"



- 1) 기술의 발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축조하는 SF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 2) 80년대까지의 SF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부양시켜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획물 이었는데, 이는 정말 과학자를 길러내는데 효과적이었을까?
- 3) 한국 SF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 사회의 변화와 SF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가?

12월 5일 Wed/12:00

학술정보관(E8) 312호

이지용 교수

건국대학교 문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SF협회 상임이사

DGIST | 교수학습센터

※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 문의처 : 교수학습센터(785-6682-4)  
cti@dgist.ac.kr

# DGIST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아프리카 가나에 가다



△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탈 색칠하기를 하고 즐거워하는 가나 학생들  
(사진 = 신민혜 기자)



△ 한국어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는 가나 학생들  
(사진 = 신민혜 기자)

지난 여름, DGIST에서는 월드프렌즈 ICT 봉사활동으로 아프리카 가나와 베트남에 각각 12명씩 총 24명의 학생 봉사단을 파견했다. 이 중 새로 추가된 파견국인 가나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경험을 학부생들과 나누고 싶어 기사를 쓰게 되었다.

### [ICT 봉사단이란?]

ICT 봉사단은 DGIST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함께 주관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다. 매년 4월 중 학생포털에 모집 공고가 게시되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5월 중 선정이 완료된다. 이후 예방접종 및 파견 전 교육을 받은 후 7~8월 중에 1달간 파견된다. 파견 기간 동안 비행기나, 보험, 현지 체류 비용이 모두 지원되어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

### [파견 후의 전반적 일정]

파견이 되면 수업 시작 전 이틀 정도 시차적응과, 수업 준비가 이루어진다. 수업할 학교에 미리 방문하여 컴퓨터 등 장비 상황을 체크하고 현지 학교 선생님과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조율한다.

월요일이 되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IT수업을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문화 교류 수업을 진행한다. 주말에는 가나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아 자체적인 여행은 위험하므로 현지 코디네이터의 인솔 하에 다같이 관광과 문화교류를 한다. 면직물 생산 공장 방문, 지역 동물원 방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였다. IT 교육 프로그램은 4주치의 수요일에 종료되었으며, 일요일까지는 DGIST 대학원에 재학중인 가나 학생의 인솔로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 관광을 하며 관광과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파견되어 하는 일]

우리 팀의 이름은 “함께가나” 로, 스크래치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대상 학년은 중학생이라고 듣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실제 파견되어 만난 학생들은 10살 내외의 초등학생이었고, 스크래치는 물론 컴퓨터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교육 초반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준비해 간 교육 내용을 전



△ DGIST의 가나 대학원생 임마누엘과 함께한 현지 관광  
(사진 = 신민혜 기자)



△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가나의 Cape coast 풍경  
(사진 = 신민혜 기자)

반적으로 수정하여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는 목표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IT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스크래치 소개부터 시작하여 과학 원리를 이용한 스크래치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광원과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변하는 스크래치, 우리 몸의 소화과정에 따라 음식물

이 이동하는 내용의 스크래치 등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과학 지식을 활용하였다. 3주간 이러한 다양한 스크래치 예시를 만들어 본 후 마지막 주에는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스크래치를 활용한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상식을 하였다.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매 수업 시작 전 10분간 한국 문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여행을 소재로 한 영상이나, 간단한 한국어 교실 등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문화교류 시간에는 종이 하회탈 색칠하기, 부채와 엽서에 한국어 캘리그래피 쓰기, 한국 전통놀이를 활용한 운동회, 종이 거북선 모형 만들기를 하였다.

### [ICT 봉사에 지원할 학생들에 대한 조언]

해당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 IT 실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나라와 교육 봉사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한 달의 봉사기간이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베트남과는 달리 가나의 경우 학생들의 IT 수준이 높지 않고, 가르쳐야 할 학생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높은 IT 수준보다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여러 번 설명해주며 IT 전문가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봉사 준비 과정에서는 면접 전에 파견되어 진행할 수업 내용을 모두 기획하고, 바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한 후 최종 면접에 임했다. 물론 파견 후 실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준비해 온 수업 자료를 바꿔야 했지만, 기존에 꼼꼼히 준비해 왔기에 큰 어려움 없이 수정할 수 있었다. 다음 해에 지원할 학생들도 해당 나라와, 수업 내용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선행된다면 꼭 선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편의시설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각오도 필요하다. 파견 학교의 컴퓨터 사양은 매우 낮으며, 숙소 시설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팀 구성원이나 현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생활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각오하고 잘 대비해 간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민혜 기자 shinminhye@dgist.ac.kr

# [오피니언] 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꿈꾼다

퓨마 뽀롱이의 죽음과 동물권 문제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작년 여름이었다. 홋카이도 여행 중에 아사히카와 동물원을 방문했다. 연간 평균적으로 3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다는 동물원은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꽤나 희귀한 동물도 있었다. 처음보는 동물이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 하면서도, 불쑥불쑥 의문이 치밀었다. '저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걸까?', '야생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과 동물들에 대한 감탄으로 인해 동물원을 돌아다니는 내내 머리속이 복잡했다. 그 와중에, 거의 대부분의 육식동물은 우리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엔 날씨가 더운 탓이었구나 생각했지만, 우습게도 동물원을 떠나기 직전에 웅크려 있던 동물 대다수가 야행성이란 게 생각났다.

지난 18일에는 대전 오월드에서 퓨마가 탈출했다. 2010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퓨마 '뽀롱이'는 2013년 대전 오월드로 옮겨졌다. 그 안에서 수컷 짝을 만나 새끼를 낳고 살았다. 평생을 우리 안에서 지냈던 '뽀롱이'는 사육사의 실수로 인해 우리를 탈출했고, 5시간의 짧은 외출 끝에 사살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마취총을 맞고도 금방 다시 활동함에 따라 생포가 쉽지 않아 사살하게 됐다고 밝혔다. 뽀롱이의 사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근대부터 인류는 끈임없이 권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논쟁해왔다. 인간에게 동일한 권리가 당연해진 최근에는 권리의 대상이 '동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도축된 닭은 9억 3600만마리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식용견 사육을 억제하기 위해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혹자는 '닭과 개의 차이는 무엇이나'고 되묻는다. 동물권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러면서 집에서는 업살(업진살) 입에서 살살 녹네)하면서 고기 먹겠지'라며 운동의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단 동물을 보고 먹는 문제에만 그치는 논쟁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7년 동물실험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약 308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을 위해 희생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설치류와 어류가 실험에 동원되고 원숭이, 돼지 등의 포유류는 소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들을 고려하면, 어렵짐작으로도 소수의 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가 희생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과학 분야에서 동물실험의 효용성과 생명윤리를 근거로 동물실험을 생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부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운다. 필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불쌍해 하면서도, 동물원에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공장식 축산업에 반대하면서도 고기를 좋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학기술인으로서 과학의 발전을 위한 동물실험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전혀 뜻밖의 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 록산 게이는 자신이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를 '나쁜 페미니스트'라 지칭하며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를 따라다닐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니까.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중략)...나는 그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내 글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온전히 나 자신으로 남고 싶을 뿐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다른 생물을 살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생명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말과 행동, 습관, 인격, 인생을 연쇄적으로 바꾼다

고 말했다. 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도, 그를 위해 희생되는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과학지식의 확장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라도 희생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 존엄성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 큰 일인 것이다.

인간의 권리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를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당연한 사실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을 시작으로 퍼지게 되었고, 미국의 노예제도는 전쟁 끝에 약 150년 전인 1863년 폐지되었다. 여성의 참정권은 '서프러제트'와 같은 여성운동 끝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부여되기 시작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늘 지난하다.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겪는 토의와 논쟁은 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안에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생명 존엄성을 믿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머지않아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배현주 기자 bhjoo55@dgist.ac.kr

## 탈현풍, 오늘은 떠나는 날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일기를 쓰지 않았다. 하루의 마침표, 기억을 심는 행위가 일기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앞서 썼던 일기를 읽으며 추억에 젖던 나를 멀리한 채, '어느 순간부터 쓰지 않았나'가 중요하지 않았다. '왜 알면서도 안 쓰는데.' 귀찮음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흘러가 삶에 흥미를 잃은 것이었다.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이 너무도 싫었다. 하지만 그 증오가 내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옥죄어 오는 입시 속에서 나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밧줄이 풀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익숙한 삶에서 새로움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똑같은 삶을 만들었다.

우리는 반복된 삶을 산다. 강의실, 기숙사, 강의실, 기숙사. 가끔 삶의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다시 그 삶 속에 갇혀버린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탈현풍, 오늘은 떠나는 날이다.

### [유쾌함에 빠지게 되는 연극 한 편]

대구 동성로 거리를 쭉 걷다 보면 아트플러스 씨어터, 송죽 씨어터 등에서 나오는 많은 연극이 매일 밤을 수놓는다. 보기만 해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로맨스물, 유쾌함 속에 가족, 그리고 감동을 부르는 가족, 코미디 장르 등. 그 속에서의 즐거움은 새로운 하루를 빛어낸다.

연극은 영화와는 다른 특색 있는 매력을 자아낸다. '극과의 거리'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들은 관객과 소통하며 극을 이어 나간다. 주인공을 찾으며 관객한테 찾아달라며 얘기하기도 하고, 시간을 묻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등 관객을 극과 함께 가도록 한다.



△ 연극 「와일드 패밀리」 공연 사진 <사진 = 임다빈 기자>



△ 2018 달성 100대 피아노 공연 사진 <사진 = 류태승 기자>

내가 봤었던 '와일드 패밀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배우는 극 도중 말을 걸고, 장이 끝날 때마다 호응을 이끌어 극에 몰입하게 한다. 코미디 연극 러닝타임 내내 계속 웃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 따뜻한 감동 또한 있었다. 무겁지 않게, 가볍게 웃음 짓고 싶다면 연극 한 편을 권해본다.

### [100대 피아노, 그 강한 울림에 젖다]

매년 가을 주말에 한 번, 사문진 나루터에서는 100대의 피아노 소리. 그리고 피아노와 어우러진 대중음악과 뮤지컬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대의 피아노가 일으키는 웅장함과 멋, 그와 어우러지는 가수들의 목소리에 취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클래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지루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100대의 피아노가 함께 운명 1악장을 연주하는 순간 그 속에 빠져들게 된다. 반주라고 결들임이라 생각되던 피아노가 '웅장하다. 강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니까.

또한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음악인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 흐르는 피아노 소리는 그저 감상에 젖도록 한다. 음악인들의 감성, 그를 든든히 받쳐주는 피아노, 그걸로 충분하다. 음악과 함께 밤을 보내기에 말이다.

이처럼 떠나는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나를 선물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간다. 비록 여행이 아니어도, 잠시라도 좋다. 무언가 마음이 생긴다면, 생각이 난다면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조금의 시간이라도 멋진 하루를 선물 받을 테니까.

It's today. Oh, it's my favorite day!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 '꿈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에서.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은 또 무엇을 할까?

임다빈 기자 frankful@dgist.ac.kr

# DIFF 상영작, '고백' 정아름 감독과 영화를 이야기하다

대구 단편영화제(이하 DIFF)는 폐막하였지만 그들의 열정은 끝맺지 않았다. 이번 DIFF에 '고백'이라는 작품을 연출하여 상영한 정아름 감독과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 [영화에 빠져 살다.]

앞선 서성희 DIFF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꿈의 공장'이라고 말할 기억이 있다. 그 꿈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혹은 불가능한 일이든 영화는 꿈을 이야기하고, 소통, 공감을 이끌어낸다. 정아름 감독(이하 정 감독)은 영화에 대해 이랑(영화감독 겸 인디 가수)의 말을 빌려 얘기한다.

"어쩌면~난 영화를 만드는 일로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어쩌면~ 난 영화를 만드는 일로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좋은 이야기를 통해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나도 그런 것 같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맞벌이였기 때문에 비디오, 책 대여점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혼자 보내던 시간을 영화가 채워주고 만화가 채워줬기에 외롭지 않았다. 살아있는 가상의 내가 만든 세계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혹은 캐릭터에 매료되고, 이런 것들이 좋다. 공감의 주체가 열등감이든, 사랑이든, 잊은 추억이든 잊고 싶은 기억이든. 글, 그림, 음악, 연극 모두 다 좋아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해서 빠져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다."

정 감독은 영화를 여행이라고 표현한다. 매번 일하는 사람이 다르고, 사람마다 현장 분위기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 새로워서 지루해질 틈이 없다고. 다들 여행가고 싶지 않냐 묻는데 나에겐 현장이 여행이라고. 그런 긴 여행의 '끝'에 고백이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 [신뢰, 의심 그 속의 딜레마, 고백]

고백(告白) [고: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학급 내 공금이 든 지갑이 사라짐을 안 반장 정현(김우겸)은 반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 범인 색출에 들어간다. "아니면 가방 까봐." 서로를 의심하며 학급생 전부를 적고 한 명 한 명 범인 후보에서 지워 나가는 행위까지 벌인다. 그때 정현은 자신의 우산 속에 끼어 있던 지갑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찾았다는 기쁨은커녕 정현은 딜레마에 빠진다. 이미 일은 꽤 커져 버렸고, 리스트 내에는 정현의 이름 역시 적혀 있다. 진실을 말한다 한들,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에 의심만 시켜 놓고 바보짓 하게 만들어 버린 애라고 낙인 당할 뿐인데. 그리고 학급 내의 분위기는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



△ <제공 = 정아름 감독>



△ <제공 = 정아름 감독>



△ <제공 = 정아름 감독>

줄 것 같지 않았다. "정현이가 범인 아냐? 자기 용돈 벌이하려고 훔친 거 아니냐고." 결국 정현은 딜레마 속에서 진실을 감춰버린다. 그는 가짜 범인인 영(윤설)을 만들고,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못한 채, 엔딩 크레딧인 '미안'이라는 한 마디와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린다.

## [이상적 소재로 사회를 담다.]

"고백이라는 작품은 이상일 감독의 '분노'라는 영화에 영향을 받아 신뢰, 의심에 대해 써 내려간 이야기이다. 졸업영화 아이템을 적던 중, 친구가 편집실에서 산 선스크림이 사라지고서 단체방에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은 상식이고,

개념이 없으며, 조용히 돌려놓으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후 범인을 찾았냐고 물었을 때, 사실 자신에게 있었는데 민망해서 안 밝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서정적인 분위기로 담아내고 싶었다."

모두들 일상에서 한 번씩은 접해봤었던 경험이다. 필자도 작년도에 학급비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은 범인 찾기와 불신, 의심으로 덮이기 마련이다. 정 감독 역시 이에 동참한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보다 학교 교실이라는 집단, 더 나아가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보이는 것이 더욱더 중심이 되길 원하게 되었고, 그런 의도를 두고 모든 장면을 구축했다고 한다.

## [메시지 그리고 집단 속 '나'의 대답]

영화는 딜레마, 선택 속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가역성(非可逆性), 한 번 얽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정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미 모두 의심받기 시작했고, 나까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진실을 말한다 한들 몇이나 그 말을 믿을까? 자기가 숨겼으면서 문제가 생기니 내놓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해프닝으로 지나쳤더라도 교실의 학생들에겐 정현(김우겸)이 '지갑을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반 애들 의심한 애' 이런 결과만 비칠 뿐이니까. 결국 딜레마 속에서 정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정현(김우겸)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영(윤설)에게 사실을 터놓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영(윤설)을 희생시켰다. 이젠 사실을 고백하기도, 영(윤설)에게 '미안'이라는 말을 하기도 늦었다. 이미 옆질러진 물이다.

정아름 감독은 "관객들이 집단에 속한 캐릭터 중 하나는 '나'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집단 속 그리고 사회 내의 우리는 어떠한가? 남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더욱 의심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며 잘못된 진실을 퍼뜨리곤 한다. 그 일이 자존심을 더욱 실추시키는 일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현실은 비가역적이다. 이후,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백할 기회를, 다시 되돌릴 기회를 잃어버렸음을 안 그 순간에는 늦어버렸다. 왜곡된 사실은 이미 널리 퍼져버렸기에.

임다빈 기자 frankful@dgist.ac.kr

# 내게 영화는 운명이다, '김녕회관' 문재웅 감독과 마주하다

제19회 대구단편영화제가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뇌리에서 가시지 않는 영화 한 편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달달한 사랑을 담은 단편영화 '김녕회관'이다. 대구단편영화제 지역단편영화 특별전에 초청된 '김녕회관' 문재웅 감독을 만나 그의 삶과 영화관을 들여다보았다.

## "내게 영화는 운명이다"

문 감독은 장편영화에 없는 단편영화만의 독특함에 푹 빠졌다. 자칫 이야기가 길어져 그 맛이 재미가 떨어질 수 있는 걸 단편영화로 재치있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만 있다면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장점도 문 감독이 단편영화를 '놀이'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었다.

단편영화를 택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상업영화는 누군가 큰돈을 투자했기에 관객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독립영화는 비교적 자유로워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마음대로 걸어 가볼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장점이 있다. 물론 단편영화를 찍는 데도 돈이 든다. 문 감독은 영화와 여행을 비교한다. 여행 갈 때도 필요한 만큼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저축하고 영화를 찍는다면, 여행에선 사진이 남고, 단편영화에선 영화가 남는다. 더불어 문 감독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단편영화는 즐거운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소소한 특별하든 어떤 상황을 시처럼 표현하며, 만드는 게 즐거운 놀이에 가깝다는 것이 단편영화의 매력이라 생각해요."

## 장편영화가 소설이라면 단편영화는 시다

문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억지로 그의 욕구를 억누르기보다 '가자, 내가 함께 할게'라는 생각으로 지지해주었고, 이것이 오늘날 단편영화를 찍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어렸을 때부터 간직하던 내면의 창작 욕구가 단편영화로 승화된 것이다.

18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며 독학으로 단편영화를 배웠다. 혼자 하다 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렇기에 좋은 영화를 반복해서 찾아보고, 연구하며 좋은 영화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다고 한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열정적인 감독이다. 문 감독은 자신이 만든 영화를 볼 때는 관객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스스로가 훌륭한 관객이 되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대본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소재에서 시작된다. 소재 속에서 행동할 인물을 창조하고, 사건을 만들어서 조합하면서 대본이 완성된다. 문 감독은 단편영화 '포구'를 촬영하면서 생긴 일을 기억에 남는 일화로 꼽았다. 8월 무더운 여름에 머리술이 별로 없던 아버지 역의 배우는 강렬한 태양 때문에 머리에 화상을 입었다. 문 감독은 당



△ 은이가 운영하는 김녕회관 앞을 지나가는 훈석 <제공 = 문재웅 감독>



△ 김녕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다. <제공 = 문재웅 감독>

시 명장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 하도 가족들이 아버지를 귀찮게 하니깐 "머리가 정말 뜨거워!"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촬영 전 시나리오 쓸 때는 머리에 화상이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으니, 배우가 "머리가 정말 뜨거워!"라고 소리칠 때 모든 사람이 뺨 터져버렸다고 한다. 머리가 복잡해서 뜨겁다고 말한 건데, 화상을 입어서 뜨겁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배우가 "내가 머리 화상 입고,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라고 해서, 문 감독은 농담처럼 "칸영화제 선정되면 칸에 데려가겠다"라고 말했다. 근데, 덜컥 칸에서 초청 소식이 들어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배우는 다른 일정이 생겨버려서 함께 칸에 갈 수 없었다. 문 감독은 이 일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배우가 다행히 대머리가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제19회 대구단편영화제에 초청된 '김녕회관'은 제주도 김녕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작사랑'을 주제로 삼아 전개된 영화이다. 김녕회관은 제주도에 내려간 작곡가 '훈석'이 마을 펍 사장 '은이'에게 호감이 생겨 그녀가 좋아하는 피아노곡을 작곡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자존심만 세고 부끄러움이 많던 훈석은 은이에게 제대로 마음도 표현 못 하고 주변에서 뱅뱅 맴돌기만 한다. 문 감독은 이런 훈석을 옆에서 보면 정말 웃긴다고 말한다. "삶이란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해도 사실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 하고, 차이면 차이고. 또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거나 심박함을 좀 내려놓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랑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영화에서 훈석이 바라보는 세상은 무채색이었다. 하지만 오직 은이를 볼 때만 장면에 색이 입혀졌다. 문 감독은 흑백과 컬러가 오가는 영상의 영감을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프란츠(Frantz)'란 작품에서 받았다고 한다. 이에 훈석의 고독한 상태를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우울할 땐 세상이 잿빛으로 보인다고 하죠. 아주 쓸쓸하고 고독할 때 말이죠. 훈석의 상태가 그래요. 고독하고 외롭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땐 생기가 넘치고, 세상이 화사하게 느껴져요. 그걸 표현했어요."

'김녕회관'에는 비상회담에 나왔던 알베르토 씨가 나온다. 비정상회담을 즐겨보며 알베르토 씨의 팬이었던 문 감독은 웃는 모습이 아주 순박하고 맑은 모습에 캐스팅을 진행했다. 은이가 외국인과 친하다면 어떤 사람일까 친할까에 대해 생각해보니, 알베르토 씨가 떠올랐다고 한다. 게다가 훈석은 외국에서 피아노를 공부했기에 나름 서양인에 대한 경쟁심이나 열등감도 있을 것 같아서 캐스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문 감독은 직접 소속사에 연락해 꼭 알베르토 씨를 캐스팅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했다.

김녕회관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가득 담긴 제주도 김녕리를 배경으로 삼았다. 문 감독은 김녕의 자연과 더불어 예쁜 펍도 있어 영화를 김녕에서 찍었다고 말한다. 관객들은 하나같이 자연환경을 너무 잘 담았다고 칭찬했다. 이에 문 감독은 "자연에 담은 특별한 촬영기법은 없는 거 같아요. 평소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아늑함이 좋아서 제가 보는 시각이 촬영에 드러나는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

김녕회관은 실존하는 펍이다. 문 감독은 미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던 당시, 바닷가 마을 근처 예쁜 카페와 펍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색했다. 촬영감독이 추천한 김녕회관이라는 펍을 보고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어 촬영장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 감독이 영화제에서 눈여겨본 작품도 있었다. 다 좋은 작품이지만, 굳이 꼽자면 '목욕탕 가는 길'이 정말 좋았다고 한다. 인물의 감정과 생각, 상황을 하나하나 드러



△ 김녕회관 포스터 <제공 = 문재웅 감독>

내고자 하는 촬영의 세밀함과 섬세함이 좋았다고 한다. "감독님이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찍었구나. 작은 것도 볼 줄 아시는 거죠. 등장인물이 느끼는 아픔을 엿볼 수 있고, 좋았던 작품이에요"

독립영화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다. 더 많은 작품을 원하는 관객과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창작자 간 중간 매개체는 영화관이다. 문 감독은 독립영화관이 분명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문 감독은 작은 카페에서도 독립영화 상영회를 할 수 있도록 극장에 대한 법률과 기준도 손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독립영화관만으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카페나 펍에서 주말마다 상영회를 진행할 수 있다면,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객과 창작자들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 문 감독은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을까? "앞으로 많이 고민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청년에 대한 주제로 접근해보고 싶어요. 제가 청년이다 보니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자주 해보고 싶어요" 문 감독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이 들쭉날쭉하는 이 시기의 삶을 나중엔 다루기 어려워질 거 같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과학자들과의 협업도 잊지 않았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물리학자 킵 손과의 협업처럼 과학과 영화는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공상과학 이야기를 좋아하는 문 감독은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ET도 좋아한다. "과학자와 같이 협업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녕회관은 제주흔디독립영화제나 이디아 커피랩 독립영화상영회 등에서 꾸준히 상영 요청이 들어온다. "제 영화가 재밌다면 앞으로 더 불러주시겠죠. 그런 날을 항상 기다립니다. 언제든 제 영화가 보고 싶다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제 영화를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추억 쌓고 싶네요!"

DGIST GALLERY SPECIAL EXHIBITION

# BE CREATIVE!



2018.11.05. ~ 2019.01.16.  
DGIST GALLERY (E8, 1F)



디지스트신문 DNA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 팔로우를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원내외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 임명

부편집장  
김승규 ('18)

정기자  
김승규 ('18)  
박동진 ('18)  
신민혜 ('16)  
이동규 ('18)  
이동현 ('18)  
이재성 ('18)  
임다빈 ('18)

수습기자  
김준호 ('18)

원내유일언론

## 디지스트 신문 DNA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취재요청이나 제보는 물론, 건의사항과 문의사항도 메일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사 발행 계획 수립 및 취재 기자 배정을 위해 **최소한 행사 1주일 전**에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자치단체 행사, 원내외 세미나 등 학부생이 알아야할 내용을 취재합니다.  
취재요청과 제보는 DGIST 학생과 교원, 직원, 연구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DGIST 메일로 보내드린 취재요청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지스트신문 DNA (@dgistdna)



<http://dgistdna.com>



[dgistdna@dgist.ac.kr](mailto:dgistdna@dgist.ac.kr)